



안철수 새정치연합 지방선거 성공의 세가지 조건

- ① 시도지사 1~2곳 승리
- ② 정당득표 민주당 넘기
- ③ 영남에서 가능성 확인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 ... 본격 창당 수순 돌입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17일 오후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수순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이 양당 구조로 고착화된 한국 정치판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우선 6·4 지방선거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최소 1~2곳 이상 당선자를 내고 정당득표율에서 민주당을 넘어선 것이나 여가를 나란히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영남에서도 새정치연합이 경쟁력과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성공 조건을 조망해 본다.

◇광역단체장 선거 1~2곳 승리해야=정기권에서는 새정치연합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명 정도 당선자를 내야 지방선거에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1곳의 광역단체장을 배출한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몸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은 녹록치 않다. 안철수 바람이 점차 잦아들고 있는데다 새정치의 구성이 부각되지

않으면서 좀처럼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기권에서는 새정치연합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잘해야 1곳에서 당선자를 내는데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정치 연합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2곳이상 당선자를 낸다면 대성공"이라며 "하지만 정기권의 냉혹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2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당득표율 얼마나 얻을까=정당득표율도 새정치연합의 연착륙에 핵심 포인트다. 정당 득표율은 각 정당 당이 시·도별로 얼마만큼 국민 지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평균 득표율은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39.59%, 민주당 34.57%, 민주노동당 7.26% 순이었다.

이번 선거의 정당투표에서 새정치

연합이 높은 득표율을 얻을 경우 현재의 양당구도를 타파할 '다크호스'로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최소한 20%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이 기대 이하의 10%대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정당에 존립마저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영남 성적표도 주목=영남에서 새정치연합이 어떠한 성적을 기록하느냐도 관건이다.

수도권과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은

어느 정도 선전이 기대되고 있는 반면, 영남에서의 경쟁력은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호남과 수도권 중심은 새정치연합이 영남에서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것인가를 주시할 전망이다.

영남의 성적을 토대로 사실상 새정치연합의 집권 가능성을 가늠할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영남에서 민주당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둔다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의 정치지형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새정치연합(가칭) 중앙위원(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공동위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새정치연합' 파괴력은? 호남 발기인 중량감·신선도 떨어져 기대감 여전 ... 새 인물·정책이 관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치추)가 17일 '새정치연합'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얼마만큼의 파괴력을 보일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의 '아성'인 광주·전남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영향과 함께 신당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신당의 상승세가 다소 꺾이고 있는 분위기에서 향후 신당 바람의 강도는 신당의 이미지와 인물, 정책 등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3박자'가 갖춰져야 만이 지역민들이 '새정치'에 대한 호감을 가지면서 지지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따라서 향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포함해 차세대 당장 및 광역의원 후보 등 신당 구성원들의 면면이 어떻게 구성될지, 호남에서 경쟁할 민주당과 정책 차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날지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당이 최근 발표한 광주시장·전남도당 창당준비단들과 창당 발기인에 포함된 광주·전남지역 인사 중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인사'는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심지어 일부는 오는 지방선거에 관여된 인사들도 포함되는 등 중량감과 신선감, 경쟁력 등에서 다소 떨어진다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모든 선거에서 '전략적 판단'을 해온 지역 유력자들을 감동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당과 함께 지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인물과 정

- 새정치연합 광주·전남 발기인 <명단>
- 강경세(광주노병연합회 운영위원장)
 - 김미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병도(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광주지부 상임고문)
 - 니의갑(전 전남일보 편집국장)
 - 바수무쿨(Basumukul Cultural Center 대표)
 - 박미경(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박희승(전남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 서정성(광주시의회 의원)
 - 선택대(전남대 윤리교육과 교수)
 - 양재필(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 이현철(수디프라이빗캐피탈 창년CEO)
 - 윤정현(전 한국 YMCA 전국연합 이사장)
 - 웨디앤(광주국제대학교 간사)
 - 이봉원(전 한국경제신문기자)
 - 이상갑(변호사)
 - 이종민(광주전남직업전문연구원 공동대표)
 - 이현철(수디프라이빗캐피탈 창년CEO)
 - 정용세(전 중앙교육원 대표이사)
 - 정진욱(전 한국경제신문기자)
 - 조정래(전남대 정치교육과 교수)
 - 최은용(광주광역시북부민속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광주 (20명)
- 강경희(여수 선풍혁신당소장)
 - 김재석(전 전남도지사)
 - 김호신(우리농산물산지기공운동본부 사무총장)
 - 김홍석(전 국회의원)
 - 민민기(전 해군공의회 의원)
 - 박종수(전 러시아 공사)
 - 신기아(토마스양산물산지기공운동본부 연구원)
 - 서상석(전 무인군수)
 - 윤재갑(전 해군 군수서령부 사령관)
 - 이석형(전 환경공수)
 - 정재호(한국병선협회 회장)
 - 정표수(에비엔 공군소장)
 - 조용(사)전국아파트대공동대표)
 - 최형준(전 목포시의회 의원)
- 전남 (14명)

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신당 바람의 강도는 아직까지는 유동적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신당 지지도로 이어질지는 낙관할 수 없지만, 안 의원이 지방선거 기간 중 광주·전남에서의 행보에 따라 신당 바람의 강도는 세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야 '간첩사건 증거 조작'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정원에 의해

증거서류가 조작됐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직은 위조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신중론을 폈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

박지원 의원 "검찰, 국정원 폭두각시 노릇" 새누리 "아직 위조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

같은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출생기록 문서 인수 경위와 관련,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서 직접 받았다"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답변에 대해 "이번 사건은 '제2의 댓글 사건'과 똑같은 것으로, 대사관

에 나가 있는 국정원 IO(정보관)이 한 짓"이라며 "검찰이 국정원에 놀러 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법계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한 피고인 유우섬씨에 대한 중국 허풍(和風)사의 '출생기록조사 결과' 문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한 뒤 "이번 사건은 중국에 대한 주권침해적 증거

날조 사건"이라며 "법정부적 진상규명 조치" 설치를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은 의원은 박법계 의원의 주장에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주권침해라고 단정짓는데 대해 화가 나고 안타깝다"며 "최소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어떻게 간첩조작 사건으로 확증할 수 있는지도 두렵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부 신입생 추가모집

원서접수

2014년 2월21일(화) ~ 24일(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062)605-1114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리치투어
(광산구 월계동 1층) 062)431-0102

가람여행사
(남구 봉선동 이마트 2층) 062)653-5230

무인출발 상품

[CBPF01-026] **북경 4일**
440,000원 → 299,000원 ~
출발일 2월 25일(화)

[CBPF01-026] **북경 5일**
490,000원 → 329,000원 ~
출발일 2월 28일(금)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2014년 하나투어와 함께, 즐거운 여행되세요!

무인출발 캄보디아 전세기

2014년 01월 01일 ~ 2014년 2월 26일
매주 수요일(3박4일)/토요일(3박5일)

하나골프
부영CC / 포트라CC / 양코르 54홀
캄보디아 씨엠립 4일/5일

실속골프
[특급] 캄보디아 4일 / 5일 1,399,000원 ~

명품골프
[초특급] 캄보디아 4일 / 5일 1,749,000원 ~

히니무너를 위한 지역별 BEST NO.1 상품

[ABW179-888] **아부마린 타이빌라**
3월 - 토/일/월요일
599,000원 ~

[ABW103-868] **반안트리 풀빌라**
3월 - 토/일/월요일
1,500,000원 ~

[PHW-222] **임페리얼 리조트**
3월 - 일/월요일
세부 5일 879,000원 ~

[HWW215-HA0] **마켓나일랜드**
3월 - 토/일/월요일
1,740,000원 ~

[PAW402-026] **노보텔 달링버**
3월 - 토/일/월요일
1,850,000원 ~